

55. 도장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코인두암

성별 남 **나이** 51세 **직종** 마그네트 제조업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이○○(51세, 남)은 1999년 5월 28일 OO 마그네트(주)에 입사하여 마그네틱 리프터의 도장, 조립 작업을 하였으며, 2005년 10월 코인두암 진단을 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이○○는 1999년 5월 28일 OO마그네트(주)에 입사하여 2002년 3월 1일 까지 일반조립 하였다. 이후 2003년 3월 28일 까지 도장 보조를 하였고, 사업의 위해 퇴사하였다. 2003년 4월 25일 재입사하여 도장작업을 하였고 2005년 11월 18일 휴직하였다. 하지만 근로자 이○○의 진술에 의하면 1999년 5월 28일부터 2001년 7월경 까지 조립업무를 하였고, 2001년 7월경부터 2005년 11월 18일 휴직 전까지(중간에 약 1개월간의 퇴사기간 있음) 혼자서 도장 작업을 했으며, 도장 보조라는 직종은 없다 하였다. 동일한 작업공간에서 가공, 용접, 도장, 조립이 이루어 졌으며, 도장 작업은 이○○가 혼자 하였다. 도장 작업은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부스에서 하였고, 필요한 도료는 깡통에 담아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2003~2004년은 OO대병원에서 작업환경측정을 하였고, 근로자 이○○에 대해서는 유기용제, 에틸벤젠, 톨루엔, 크실렌을 측정하였다. 2005년에는 OO대병원에서 작업환경을 측정했으며, 측정 항목은 동일했으며, 측정결과는 모두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도장 부스 우측의 용접, 제관 작업에서는 용접흠, 중금속 등의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용접흠, 크롬, 망간, 분진은 모두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3. 의학적 소견: 흡연력은 약 7갑년에 해당되었고 술은 보통 일주일에 2회 정도, 주량은 소주 0.5~1병 정도였다고 한다. 특별한 가족력은 없었다.

4. 결론: 근로자 이○○은

- ① 도장작업 중 코인두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 ② 과거 직업력상 코인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노출기간이 짧고,
- ③ 도장작업에서는 여러 가지 유기용제와 크롬에 노출되었으나 코인두암 발생과의 연관성은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 ④ 코인두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흡연력이 있어,

근로자 이○○에서 발생한 코인두암의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다.